

이상형은 보살... 인류에 열망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대승불교 ②

대승불교의 가장 유명한 스승인 나가르주나(용수·BC 2~3세기)는 북인도 남쪽에 대승원을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 여기서 확립된 교리는 후일 동아시아 여러나라로 전파된다.

대승불교는 이 세상이 실재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반면 소승불교는 세상의 외관(外觀)은 일시적이고 허망하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Skandha)는 실재한다고 가르친다. 대승불교에서는 수행하는 그가 열망하는 열반까지도 환(幻)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만일 모든 것이 공이라면, 사성제니, 팔정도니, 업이니, 윤회니, 승단이니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가르주나는 두가지 차원에



무너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벽돌들이 잘 결합되어 있을 때 벽도 굳건히 서 있다. 벽돌이 무너지고 없다면 이미 벽 또한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논자들이 단순한 켤변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크로노스와 제논과 나가르주나는, 현실이란 우리가 논리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일깨우려고 했던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사물의 본질이 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부정적 방법(Pratyeka Buddha)의 경우도 있다. 그는 스승의 도움없이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전달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 경전에는 그를 중요한 꿈을 꾸는 방아쇠나 말뚝을 홀로 쫓아다니는 코뿔소에 비유한다.

대승불교는 여러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일련의 이름들을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세계의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분이다. 각 부처님들은 그가 속한 세계에 따라 체적이 나이가 다양하게 정해진다. 모든 부처님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있다. 즉 몸에서 서른두개의 성상(聖相)이 있고, 발에는 백발개의 성흔(聖痕)이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이룩하고자 가장 열망하는 것은 모든 인류사이의 형제애이다. 이 땅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Maitreya)로서 서기 4457년에 출현할 것

대승불교의 교학적 체계를 다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용수는 북인도 남쪽에 대승원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후 5~7백년 후인 5세기 전 반에 남쪽에 세워진 남인도사원은 대학기능을 수행하며 매우 번창했다. 시인은 남인도 대학이다.

용수보살이 中論 통해 空사상 확립 '대승선양' 수많은 부처님 인정...자비화신 미륵불 기다려

서 진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하나는 인습적인 진리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또 하나는 절대 진리로서 니르바나(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주를 거울에 비친 반영(反映)에, 메아리에, 그리고 꿈에 비유한다. 우리들은 사람과 중으로부터, 노심초사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질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부정(否定)의 방법들을 통해 중도(中道)를 설교했다. 파괴도 없고, 불멸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파괴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으며, 단일(單一)도 아니고 복수(複數)도 아니며,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다는 것이다.

깨진 등에 비유한다. 나가르주나는 말하기를 원래 없던 것이 어떻게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느냐고 한다. 열반의 세계는 공의 세계이며, 현상세계를 넘어선 그 세계에선 이미 삼사라(俗世)가 니르바나라는 것이다. 자성(自性)이 공함을 깨달은 자는 니르바나에 이른다. 광대한 우주조차도 그와 똑같이 공한 것이다. 자(自)와 타(他)의 구분이 녹아 없어진 세계가 바로 니르바나라는 것이다.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특수한 과정도 부정된다. 나가르주나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렇게 썼다.

결어 온 것에도 길은 없고
결어갈 할 것에도 길은 없다
그러나 결어온 것과 결어갈 것 없이는
길 또한 없을 것이다.

을 강조했던 것 같다. 그 이전의 학승들은 모두 부처님의 전지(全知)만 강조해 왔다. 이와 반대로 그는 "개지성공의 모래알 수만큼 개지성공" 이고 또 그 각각의 개지성공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쳐도 그 수는 부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물의 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고 말했다. (최상지혜)라는 책에 적혀있기를, 모든 것은 단순히 이름 뿐이며 본성은 공하고 또한 '최상의 지혜'조차도 이름일 뿐이고 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아라한(Arhat)을 든다. 그는 성자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업을 쌓지 않아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입적하면 바로 열반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자신의 무한한 전생을 반추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Bodhisattva)을 이상형으로 본다. 그는 수많은 생과 사를 거쳐 온전 가는 붓다가 될 운명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성불 못지않게 현세에서의 자비행을 소중히 여긴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도 전생의 어느 순간에 호랑이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몸을 보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고독한 성자인 프라티에카 붓다

이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자비의 화신' '사랑의 총만자'이다. 그는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이땅에는 이미 그가 계시한 성전이 존재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대승불교도들에게 미륵불이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7세기 초엽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를 순례하였을 때 어느 계곡에서 엄청나게 큰 금박목조 미륵불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조각가는 세번이나 천상에 올라가 친견한 후에 그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미륵불에 관한 설화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를 현장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절에서 미륵불상과 조성을 위해 크게 불사를 벌이고 수년간 기도하였다. 어느날 이름모를 낯선 사람이 찾아와 그림을 그리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등과 팔감을 뺀 채 들어와, 안에서 문을 잠구어 버렸다. 여러 날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천란한 불화반이 걸려 있었다. 그날밤 한 승려의 꿈에 미륵불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은 사라진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번역 : 김흥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박찬시인



몇년전 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 한 시인에게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시로 써볼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연작시 '서래봉 가는 길'이라는 시를 몇편 써 발표하기도 했다.

그 시들을 발표하고 나서 약간(?)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너무 '무엇인가'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더 쓰지 못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면 그 연작시 생각이 내 머릿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솔직히 그 시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래 생각한 것들을 충분히 시로 형상화해내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한갓 글장난이나 하는 내 따위가 어찌 그 '위대한 길'을 시로 써낼 수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요즘 그나마 내 시에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왜 '서래봉 가는 길' 같은 시를 쓰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계속 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시를 쓴다는게 너무 힘들고 또 요즘은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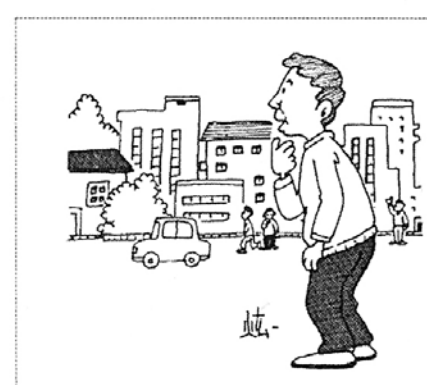
세상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감정이 앞서 울컥 화를 내기도 하고 밤새 부화를 삭이기 위해 씨근대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추스리려 애를 써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그제 꼭 화를 낼 일이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수많은 날을 후회하기도 했다.

'수행'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닦아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뜻에서는 '수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산사에서 스님들처럼 참선을 하거나 정진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남의 잘못 보면서 자신 다스려

"연작시 '서래봉 가는 길' 언제쯤 회향할까"

시가 잘 써지지 않아 아주 괴롭다. 그래도 그런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이다. 어디든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것이다. 시인이 되고 난 후 어쩌다 젊은 시절을 얘기할 때, 나는 문학도보다도 철학도였다는 것을 더 말하

다. 세상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 우리에게 생활 도처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이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것을, 나쁜 사람(정말 나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만)을 만나도 나름대로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 질 나쁜 상사들 때문에 불만을 쏟아낸다. 그리고 '이놈의 짝배, 어서 빨리 때려치워야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가 찢어버렸다 한다. 그러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혹 그로부터 배울 것은 없는지, 당장에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참을 수 없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면 이런 생각도 떠오를 것이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앉으면 저런 식으로 부하를 다스리진 않을 것이다.' 소소한 일 같지만 이 또한 '배움'이 아닌가.

곤 했다. 사실 대학시절, 나는 문학보다는 철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 철학과 학생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내가 '시인'이 되리라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시'가 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인'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 시 쓰는 일은 내게는 일종의 '수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시를 위한 시'를 써본 적이 없다. 철학을 하듯, 스스로를 '갈고 닦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는 시와 내 자신이 같기를 바란다.

만일 내 시에 '문학적 향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향기가 내게서도 배어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다. 시인으로서 삶을 마칠 때까지 그것은 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언제일까,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서래봉 가는 길' 연작시를 다시 써 시집으로 묶고 싶다.

확실한 부동산 최고의 투자대상!

"동대문 시장 내 전문도매상가"

삼우텍스프라자



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 상가인 아트프라자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원단, 부자재 상가중 초일류 1등으로 삼우텍스를 개발합니다.

★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 노후대책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실투자액 4000만원선 (무담보 용자 3000만)"
→ 투자 1년 후 2~3억 이상 형성
보 1억여원 월 250~350만

안전성과 최대 수익성을 보장받는다

6가지 핫 -포인트!

1. 각종 세금 면세의 장점
2. 최적의 대중 교통 수단 (지하철 1호선(동묘역) 환승 본건물 직통 연결 예정)
3. 40년만에 최초 국내 독점개발 시스템 (최첨단 물류시스템 즉 원가 경기절감의 극대 효과)
4. 어떤 부동산보다 단기의 최고 수익률 (투자액의 20배 수익 3~5년 기점 형성 예상)
5. 분양가 상당 저렴 (주변 상가의 50%의 이하)
6. 완벽한 주차장 구비 (1,500대 동시주차)

투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주) 한국부동산 신탁 수탁관리로 안정성 보장
2. 벽산건설 책임시공 공사 지체 보상금 제도 실시
3. 365일 TV 용단 홍보 및 이벤트 행사
4. 조기상권 활성화해 유통 사업부 부가동
5. 1개 점포→주변 점포의 3~4배 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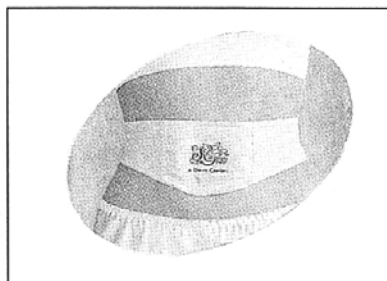
=상담역=

(02-264-3383)

개발사업부 부장 김남일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껌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아가 임파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발한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